

## 2. 민서윤(27세, 부산광역시)

### ○ 작심삼십일 가계부 기록대회 참가선수 각오 한마디

안녕하세요  
민서윤입니다!

저는 처음 '두나무 넥스트 잡'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돈의 쓰임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이전의 저는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에 저의 소비 습관이 어떤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ㅎㅎ

막연히 "나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저 착각이었더라고요 😓  
이 경험을 계기로 가계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소비를 할 때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십일조차 쉽지 않았던 예전의 저에게 '작심삼십일 가계부' 라니!  
보자마자 이건 꼭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회사 업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근무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미션을 충분히 수  
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가계부 기록대회는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리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대리 진급 후 시작하는 첫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자립을 위  
한 지출 관리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비를 즐기는 것을 넘어, 적금도 추가로 가입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목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ㅎㅎ

무엇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저만의 지출 관리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청년특립

오와아아 민대리님!  
어서오세요

일도 늘고, 근무시간이 많아져도~  
재밌는 게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아

얼마나 재미있는 지출관리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아 화이팅!!

오오오오!



2026.01.08. 14:09 답글쓰기

# 1. 가계부기록대회 첫 번째 퀘스트 인증

2026년 1월 3갈래 지출 기록하기				1. 지출 금액이-회계(내역 기록) 2. 종류도-비유 3. 금액이-금액이 지출-회계(내역 기록) 4. 금액이-금액이 지출-회계(내역 기록)										
월 고정지출		월 주지출 (한 달에 여러 번 지출하는 것)				변동지출								
(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반복 지출하는 것)		(같은 금액에 여러 번 지출하는 것)				(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반복 지출하는 것)								
날짜	지출내역	금액	내역도	종류도	날짜	지출내역	금액	내역도	종류도	날짜	지출내역	금액	내역도	종류도
5/1	이대차	38,168	월	8	1/8	주요차	50,000	월	A	1/4	편안한여행	33,800	월	B
5/1	생활비	3,180	월	8						1/11	스마트폰 충전	47,000	월	A
5/1	통신요금	44,869	월	8						1/11	신세계 100원	39,800	월	A
5/8	이대차	122,400	월	8						1/11	코미콘(대우주회)	100,000	월	A
소계	215,197				소계	33,000				소계	257,388			



오랜만에 소감과 함께 작성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이전에도 지출 관리를 하며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줄여왔던 터라, 이번 달 역시 크게 지출한 내역은 없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각각의 지출 금액 자체는 큰 편이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다 보니 보일러를 자주 틀어서 그런지 가스비가 평균 지출보다 많이 나와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반면,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전기 절약을 꽤 신경 써서 그런지 다행히 큰 지출은 아니었어요 ㅎㅎ

그리고 또 새해가 밝은 만큼 새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써보고자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늘 새해만 되면 다이어리를 사게 되는데, 끝까지 꾸준히 기록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ㅎㅎ...  
매년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해왔다는 생각에 아깝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식비 지출 내역에서 가장 큰 지출이 있었는데,  
7년 동안 함께해 온 남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제대로 된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오마카세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출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만족도 상, 중요도 A 이었습니다 🥰  
여유롭게 즐기기에 아무래도 주말이 제일이다 보니, 이곳저곳 다니며 음식만 먹은 주말이었지만 배부르고 행복한 주말로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ㅎㅎ

\*\*한 줄 소감\*\*  
오랜만에 지출 내역을 돌아보며 작성하니 다시 한번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이벤트가 있었기에 금액이 큰 지출들도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  
새해를 맞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소비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이어가며 꾸준히 관리해보겠습니다!

**오도선**  
한편의 에세이네요. 제목은 "배부르고 행복한 주말" ㅎㅎ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소한 일상을 통해 읽을수 있었네요. 독자인 저도 즐거웠네요. 이번 가계부대회는 나를 경쟁도 있는거라 ~~ 좋은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도시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보니 기대와는 전혀 못미치는 금액이네요 ㅎㅎ  
너무 즐겁게 지내지는 마세요~~  
2026.01.15. 05:37 답글쓰기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열심히 지출 관리도 하고 건강도 지키며 참여해보겠습니다 ㅎㅎ  
날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 어느정도의 추위는 옷입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나를 아껴왔는데 바닥이 너무 차갑더라고요ㅠㅠ 감기 조심하며 지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5. 15:45 답글쓰기



바로 우리은행의 \*나의 소원 우리 적금\* 이에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고,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되면서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가입 기간: 6개월 / 12개월 선택

- 월 납입 한도: 최대 50만 원

- 기본 금리

6개월: 연 4.29%

12개월: 연 3.0%

- 최대 금리

6개월: 연 8.29%

12개월: 연 7.0%

- 우대금리 조건

1. 이벤트 기간 내 '나의 소원' 작성 시 +2%

2. 최근 6개월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시 +2%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께 특히 유리한 상품이에요.

이미 이용 중이신 분들도 우대금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5%~6.29% 수준이라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판매 한도는 20만 계좌로,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좋은 상품 발견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ㅎㅎ

보기 쉽게 정리해보려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 외의 지출은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며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아 할머니 건강이 걱정됐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외출 시 쓰시라고 핫팩을 주문해드렸습니다.

필요했는데 잘 쓰고 있다며 따뜻해서 좋다고 하셔서, 다 쓰시면 다시 주문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줄 소감\*\***

매달 적금을 일상처럼 이체할 때는 실감이 덜했는데, 가계부로 정리해보니 꽤 잘 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서 뿌듯했습니다. 아직 투자나 채테크는 두려워 망설이고 있지만, 적금과 가계부만으로도 지출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점이 정말 좋은 변화라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지출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도선

주간마다 지출량이 다른것도 파악해야할 내용이지요.

청년모두에게 도움이될만한 저축상품을 찾아서 소개해주는 노력과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스스로 더 노력하고 공익적인 생각도 나누려는 모습이 올해도 여전히 보여지네요. 돈 버는 일은 서로 이익과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지출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ㅎㅎ

서윤님 !!

참여자를 대신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6.01.22. 19:15 답글쓰기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전 주와 지출 차이가 나서 비교해보게 되더라고요ππ

좋은 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보았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다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볼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6.01.22. 21:34 답글쓰기

## ★ 첫 번째 이벤트 : 최고의 지출 자랑

안녕하세요 민서윤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구매한 게 올해 가장 최고의 지출이에요!

다이어리는 그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남길 수 있어서, 날짜를 다시 들여다보면 추억을 자연스럽게 되살리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갔던 날, 맛있는 걸 사 먹었던 순간,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일들까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고 기록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최고의 지출로 선정했습니다! ㅎㅎ

어떻게보면 가게부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D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고,

예전처럼 뻑뻑하게 써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부담도 줄고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ㅎㅎ

앞으로도 예쁘게, 즐겁게 채워가 보겠습니다! 😊



**정년독립**  
서윤님 어서오세요

혹시, 기록대왕? 다이어리기록 대회도 열어야 겠어요 ㅎㅎㅎ

기록하는 재미에 푹 빠진 건, 모 전 지구 및 우주적 차원에서 전혀 무해한 빠짐이죠? ㅎㅎ 살짝살짝 보이는 내용도, 스티커도, 최고다 따봉!!

서윤님은 그냥 모 원전 썩. 따. 썩.

**엄지척!**

2026.01.23. 10:27 답글쓰기

**민서윤** **책이**  
안녕하세요!  
다이어리기록 대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즐겁고 야심차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 나를 위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떤 스티커를 붙여볼까 하는 즐거운 고민까지!

예..전부터 다이어리 도전한다고 조금씩 샀던 스티커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도 따.썩. 입니다!! 🌟🌟  
감사합니다

2026.01.23. 11:22 답글쓰기

**이유정**  
중간중간에 스티커가 귀여운데요? ㅎㅎ  
저도 다이어리를 쓰는데 꾸준히 써보려구요 ㅎㅎ

2026.01.31. 16:50 답글쓰기





오도선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느낌이 있는 소감이네요. 다이소 스티커 이야기에 공감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쇼핑을 잘 못해요. 직원과 대면하는 등 전반적으로요. 그런데 다이소를 방문하는 건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다이소 얘기가 나와서요(아무 관계 없음)  
추천해주신 '만약에 우리' 영화도 꼭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마터면 충동지출할뻔 했다고 했는데, 서윤님이 충동지출한 모습을 보고 싶네요. 어떤 결과일지 궁금해요... ㅎㅎㅎ

2026.01.26. 21:05 답글쓰기

...



2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다이소에 구경할거리가 많아서 방문하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ㅎㅎ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커가 귀엽다는 이유로 맘에 드는대로 집었더니 한 10개정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충동지출을 하려다가 정말 자주 쓸건지 고민하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ㅎㅎ

충동지출 위험하네요~!!

2026.01.27. 09:32 답글쓰기

...



1



청년독립

서윤님 충동지출 보고 싶은 1인 추가요 ㅎㅎㅎ

...



1

영화팁!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엔 영화가 반값! 이에요오



2026.01.27. 09:27 답글쓰기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오

이제 매주 수올로 바겼군요!

천 원에 관람한 분들도 있다길래 솔깃하더라고요!!

주말에 보려니 할인받기 어렵네요 흑

다음엔 꼭 반값으로 도전해봐야겠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2026.01.27. 09:35 답글쓰기

...



1

#### 4. 가계부기록대회 네 번째 퀘스트 인증

안녕하세요  
민서윤입니다!

2026년 1월 3갈래 지출 기록하기												1. 지출 항목도: 상, 중, 하 (내 기준으로) 2. 중요도: A/B/C/D 3. 급하고 중요한 지출: 5급까지 있으나 중요한 지출 4. 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출: 4급까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지출			
별 고지 지출 (중요한 사항도 나가는 돈 / 1달에 한 번 지출되는 것)				별 수시 지출 (한 달에 여러 번 지출되는 것)								연지출 (한 달에 한 번 지출되는 것)			
월세, 관리비, 렌트비, 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경수기, 인터넷, 보험, 교육, 학비, 후원, 다용, 용돈, 상담료, 우당, OT 등				교통비(주유비)/ 생활용품/ 반려동물/ 교육비 등				식비-점심, 외식, 카페, 간식, 배달 등				생활, 문화, 경조사, 기념일, 후원, 기부, 옷, 신발, 가방, 책, 화장품, 안경, 렌즈, 세탁, 수선, 여가비, 결혼, 저축, 용돈, 휴가, 선물, 도서, 의료비, 건강식품, 가전, 가구			
날짜	지출항목	금액	반복도	중요도	날짜	지출항목	금액	반복도	중요도	날짜	지출항목	금액	반복도	중요도	
1/1	내미지	86,160	중	B	1/6	유류비	50,000	중	A	1/4	브라운과크닉	30,400	중	D	
1/1	넷플릭스	5,900	중	D	1/12	유류비	50,000	중	A	1/11	스미스씨네 농장	47,600	중	A	
1/5	도시가스	44,900	중	B	1/17	유류비	50,000	중	A	1/11	신세계 약화장	29,300	상	A	
1/9	마라톤 관리비	122,490	하	B	1/24	유류비	50,000	중	A	1/11	오라카네(미확슈퍼)	150,000	상	A	
1/12	통신사비(4인라인)	60,370	중	B	1/31	유류비	50,000	중	A	1/12	일려덕데 카페	29,500	상	D	
1/12	형제도약계좌	700,000	상	B						1/14	맛의(탈까나)	24,900	상	A	
1/12	키즈카 건강보험	400,000	상	B	1/17	커피	54,580	상	A	1/17	커피	54,580	상	A	
1/12	회생교육원	400,000	상	B	1/18	배거데이	29,800	상	D	1/20	한대소	3,000	상	D	
1/12	주택청약	190,000	상	B	1/20	한대소	3,000	상	D	1/21	7번가피자	4,000	상	D	
1/20	나리 스텝 우리 학급	500,000	상	B	1/23	말주문	22,900	상	A	1/24	말주문	22,900	상	A	
					1/24	한미에 주미 2배	17,800	상	D	1/24	곰치	7,200	중	D	
					1/30	미리집	8,600	상	D	1/31	이마트	62,380	상	A	
소계	2,169,420				소계	250,000				소계	522,440				
										소계	88,150				

이번 네 번째 퀘스트에선 오랜만에 병원을 다녀오며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가가 아픈 느낌이 있었는데, 곧 나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문제였어요.

어느 순간 눈이 붓기 시작하더니 다래끼가 나더라고요ㅠㅠ

그동안 다래끼가 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난 적은 없었고, 항상 금방 가라앉아서 더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처럼 나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눈두덩이 위에 웬 마시멜로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ㅎ

결국 급하게 반차를 사용하고 집 근처 안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렌즈도 거의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고, 만성 알려지도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면역력 관리와 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약도 꾸준히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몰랐던 부분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아픈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ㅎㅎ

마라탕 결제는 회사에 동갑인 친한 동료가 있어서 종종 함께 점심을 먹는데, 이번에 다른 부서에 동갑인 신입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왔더라고요. 친해질 겸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친해져서 다음에 또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안과를 다녀온 이후로는 다시 집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같이 건강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반찬과 국거리도 직접 요리하고 있습니다. 과정도 번거롭고 설거지도 일이지만,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하는 것보다 지출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 2026년 2월 예산하기

고정지출: 1월 지출항목별로 그대로 옮겨 작성합니다.

수시지출: 1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목별 한계를 내어 작성합니다.

연지출: 2월에 지출될 특별 비용을 예상해 작성합니다.

고정지출 (1달에 한번 지출되는 것)			월수시지출 (한달에 여러 번 지출되는 것)			연지출 (몇 달에 한번 지출되는 것)		
월세, 관리비, 핸드폰, 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장수기, 인터넷, 보험, 저축, 회비, 후원, 대출, 용돈, 심일조, 구급, OTT 등			교통비(주유비)/ 생활물/ 반려동물/교재비 식비-점심, 외식, 커피, 간식, 배달 등			상입, 명절, 경조사, 기념일, 후원 회비 오신발, 가방, 헤어, 화장품, 안경, 렌즈, 세탁, 수선 여가비, 문화, 레저, 운동, 휴가, 신문, 도서 의료비, 건강식품, 가전, 가구 등		
날짜	지출항목	예산	날짜	지출항목	예산	날짜	지출항목	예산
2/1	내이자	86,160	2/11	운전자보험	44,900	2/7	화장품	50,000
2/1	넷플릭스	5,500	1/28	유류비	250,000	2/17	명절	100,000
2/5	도시가스	44,900	2/28	식대	450,000			
2/10	아파트 관리비	130,000						
2/12	통신사비(+인터넷)	60,370						
2/12	청년도약계좌	700,000						
2/12	KB스타 건강적금	200,000						
2/12	희망로아적금	300,000						
2/12	주택청약	150,000						
2/12	나의 소원 우리 적금	500,000						
소계		2176930	소계		744900	소계		150000

2월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고정 지출을 살펴보니 예전보다 금액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적금이 많다 보니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KB스타 건강적금’은 이번 2월 이체를 마지막으로 만기가 되어 해지할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0만 보 걷기를 달성해 받을 수 있는 이월은 모두 챙기게 되었어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지출 예산을 계획하다보니 식대 부분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편하게 장을 본다는 이유로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금액대를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다니시는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이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장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시장을 추천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이용해야겠습니다 ㅎㅎ

그래서 1월과는 다르게 2월에는 집밥 재료 위주의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연지출인 2월 예산 계획을 해보면서 매월 발생할 연지출을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일이나 명절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생각보다 잦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 두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한 줄 소감\*\*

벌써 마지막 퀘스트인 네 번째 기록을 하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ㅠㅠ

어렸을 때 학교 숙제 중 하나가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용돈기입장과 연필을 사고 항상 처음은 호기롭게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작성하면서 뿌듯했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힘을 써서인지 끝까지 마무리해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문구점을 가면 용돈기입장이 눈에 띄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고 구매하지만 늘 실패했어요. 예전에 쓰던 저의 다이얼러처럼요 ㅎㅎ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제가 직접 돈을 벌고 돈의 소중함을 알며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 경제·금융 관련 프로그램도 신청해 보고 멘토·멘티 교육도 받아봤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니 체감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청년독립지원청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처럼 이끌어 주시는 덕분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록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수증을 모으고 만족도와 중요도를 진단하고 예산 계획을 해보며 돈을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과 선택을 돌아보는 일이라구요.

이 네 번의 기록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비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도선

"돈관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되는 사건을 겪으셨네요 ㅎㅎ 이점은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답니다. 돈관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몸과마음도 차분해진다는 것이죠. 고정지출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진단에 대해 서윤님의 가계부를 살펴본 분들이라면 오아해 할 것이네요. 저축이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축빠면 순수지출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신지?라고요. 중요한 관찰은 저축도 현재입장에서는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저축하면 다른데 쓸 수 없으니깐요. 저축은 안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지출인것인거죠. 그래서 지출이랍니다. 우린 가계부대회에서 지출관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자는 저축왕선발대회가 아니라요. 현재를 위한 소비지출과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함께 균형을 이루는 지출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해드립니다.

서윤님의 저축에 뭔가 문제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전혀 오해없기요. 서윤님은 이미 검증되었음요) 저축의 의미가 무어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적어본 것입니다. 눈건강도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함께 하는 동안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02.04. 19:29 답글쓰기

...



2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을 여러 번 천천히 읽어보며 저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소비와 저축을 바라보니, 그동안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저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균형 있는 지출관리가 중요하다' 는 말씀을 읽으며,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또한 관리의 일부라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축에 의미를 두었던 이유를 돌아보니 심리적인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함께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해요  
목돈이 있다는 사실에서 제게는 큰 안정감이 되었고, 언젠가 저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보니 저축이 자연스럽게 제 선택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지출을 함께 바라보며, 균형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해봐야겠어요  
저의 방향을 인정해주시면서도 더 건강한 길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ㅎㅎ  
말씀해주신 방향 오래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지키며 꾸준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2026.02.05. 11:24 답글쓰기

...



3



이유정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지출이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ㅠ  
눈이 많이 아프셨다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ㅠ!!  
그리고 대회 이후에도 앞으로의 소비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작점이 되도록 꾸준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인상깊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ㅎㅎ

서윤님의 알찬 글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잘해봐야지 했던 게 벌써 30일이 지났네요ㅎㅎ  
완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026.02.06. 22:19 답글쓰기

...



3

## ★ 파이널 이벤트 인증 / 가계부기록대회 한줄총평 & 나에게 주는 상명과 이유

안녕하세요  
민서윤입니다!

### 1. 나의 '작심三十日 가계부' 한 줄 총평

이번 가계부 기록대회 퀘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했던 '참가 선수 각오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 스스로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던 각오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각오한 만큼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번 기록대회는 저에게 '기록의 힘'을 알려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정리된 지출이나 이상적인 소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소비를 빠뜨리지 않고 남기며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참여했어요.  
이 과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이어가다 보니 지출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의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잘한 소비뿐만 아니라 아쉬웠던 지출까지 함께 남기면서 가계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주로 먹는 것에서 아쉬웠던 지출이 발생했지만... 🙄)

삼십일은 결코 짧은 날이 아니었고, 저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쓰고 관리하는 재미를 느끼고, 소비를 먼저 기록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지금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 2. 나의 '작심三十日 가계부' 기록대회를 완주한 나에게 주는 상명 + 이유 한 줄

**상명:** 덜 쓰는 법 말고, 잘 쓰는 법 배웠상

**이유:** 이번 2026년 작심三十日 가계부 기록대회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무조건적인 절약을 목표로 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안사도 되지 않을까?" 하고 참고 자제했다면,  
이번 기록대회에서는 가계부를 통해 지출의 이유와 필요성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덜 쓰는 소비'가 아닌 '잘 쓰는 소비'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쓰고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원 진료나 생활에 필요한 지출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는 인정하고, 반대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의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과소비를 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저 스스로에게 결재해야 할 핑계거리를 만들었던 과거의 제가, 소비를 참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꾸준히 기록하며 지출 하나하나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 만족도 높은 소비를 늘려 나간 경험은 소비 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계부라는 기록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

그래서 이번 기록대회는 단순한 금액 관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소비 방식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덜 쓰는 법 말고, 잘 쓰는 법 배웠상'을 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D



## 덜 쓰는 법 말고 잘 쓰는 법 배웠상

성명 민서윤

귀하는 2026년 작심三十日가계부 기록대회를 통해  
무작정 아끼는 소비가 아닌 나에게 필요한 지출인지  
먼저 고민하며 '잘 쓰는 법'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소비의 기준을 세워 총동지출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의미 있는 소비를 보여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3일

(주) 청년독립지원청 민서윤





청년독립

민대리님! 감동한 제 얼굴 보이시냐염? 따흐음...

...



2

지출관리가 무조건적 절약이 아닌, 소비를 참아내는 방식이 아닌,  
내 소비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소감! 너무 좋습니다.

지출 관리가,  
안정된 삶으로 가는 재밌고, 즐거운 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는  
'덜 쓰는 법 말고, 잘 쓰는 법 배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청년독립지원청은, 가계부대회를 개최한 보람이 넘치고 있습니다아아 화이팅!!



2026.02.03. 16:52 답글쓰기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대리님이라는 글은 언제봐도 어색하네음ㅋㅋㅋ 히히  
지금까지 가계부를 쓰고 실천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저만의 목표가 생기더라구요 ㅎㅎ  
저의 뜻을 이렇게 알아주시다니...ㄷ 최고예요!!  
늘 똑똑한 소비를 하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앞으로도 재밌게! 나아가보겠습니다 ㅎㅎ  
이런 대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



2

2026.02.04. 10:34 답글쓰기



신호용

끝까지 완주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로 식비에서 아쉬운 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니 식비를 잘 통제해야 건  
강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니 지금 이상으로 기록을 잘 하셔서 돈으  
로 행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번 대회를 통해 단순히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방법  
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으로 거듭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



3

2026.02.03. 16:54 답글쓰기



민서윤 작성자

안녕하세요!

축하 감사합니다!! 식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ㅎㅎ...  
건강해지기 위해 지출관리도 하고 자제력도 키워나가야겠어요!  
행복을 쟁취하는 삶...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꼭 이뤄내겠습니다 ㅎㅎ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

...



2

2026.02.04. 10:37 답글쓰기